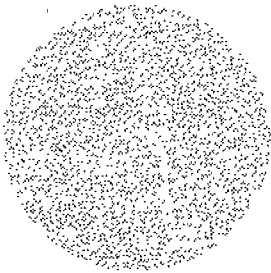


# 再診斷돼야 할 電氣保安担当者の 法的地位

그 問題點, 对策은  
大乘的이어야...



李 慶 植

和仁엔지니어링 代表

우리는 닭(鳳)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라는 말을 흔히 들고 쓰기도 한다. 나중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合理化 내지는 正當性을 主張하기 爲하여 그럴듯한 가짜 證據物로 오리발을 미리 準備한 것이니 텔레비전의 搜查劇에서 흔히 演出되는 가짜 알리바이의 準備를 보는 것과 같아 그 속마음이 흰히 들여다 보이는 약삭빠른 處事에 처한 이야기라 생각한다.

몇年前 電氣保安担当者を 選任하는데 있어서 事業場의 設備規模의 制限과 保安担当者の 兼任 또는 保安代行에 對하여 떠들썩하던 때에 商工部에서 關係機關의 代表者와 前電氣技師協會 會長을 모신 本人이 한자리에 모여 이런 問題에 對하여 長時間 論議한 일이 있었다. 勿論 미리 定하여진 方向에 對한 論議였고 根本的인 合意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豫測한 것이지만 會議結果는

“1 事業場에 1 保安担当者 選任”을 原則으로 하되 一部 山間僻地에 있는 鑛山과 같은 事業場은 保安担当者的 選任이 힘들고 그렇다고 傍觀狀態로 둘 수도 없으니 保安代행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違法을 막고 檢査만이라도 徹底히 한다면 어느 程度의 事故豫防도 可能해지니 兼任과 保安代行的 範圍를 擴大許容하되 保安担当者的 確保가 쉬운 大都市의 事業場에 對하여는 指定 調査機關에서 保安代행을 하지 않기로 하고 保安担当을 할 수 있는 有資格者가 넉넉해지면 “1 事業場에 1 保安担当者 選任制度”로 誘導해 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後 이 會議의 目的이 雜音의 瞬間을 넘기자는 속셈에서 이루어졌다는 事實을 現實로 대하게 되면서 부터 괴로움에 쌓이게 되었고 그렇게도 無價値하고 一時的인 合意와 署名을 왜 했는지 지금도 理解할 수가 없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바뀌었고 나 혼자만이 技術者로 남아있기 때문인지 이 엄청난 責任을 免할 수 없다는 苦悶이 항상 함께 있는 것 같다.

電氣保安問題가 나오고 電氣技師들의 하소연이 있을 때면 “지난번의 會議가 자꾸 聯想되면서 그때의 意圖는 그게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과 그 以後의 結果를 보면서 더욱 괴로워지곤 한다.

保安担当者的 選任과 保安代行이라는 말이 表現이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社會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같거나 近似하다고 認識되어 있다는데 問題가

있는 것 같다.

電氣事業法에 나타난 保安担当者의 任務는 事業用과 自家用 電氣工作物의 工事, 維持 및 運用의 監督이고 指定調査機關은 家庭住宅 또는 一般用 電氣工作物의 安全與否의 調査業務를 韓國電力公社로부터 委託받아 遂行하는 機關으로 되어 있다.

法에는 아무리 찾아 보아도 指定調査機關이 自家用 電氣工作物의 使用前檢査나 工事, 維持 및 運用의 監督業務를 할 수 있다는 內容이 없다.

그러나 電氣事業法 施行令(14條)은 自家用 電氣工作物의 檢査業務를 指定調査機關에 委託한다는 內容이 있고 施行規則(第58條)은 어디에 根據했는지는 모르지만 自家用 電氣工作物에 있어서 指定調査機關과 保安契約만 하면 保安担当者를 選任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을 뿐 아니라 이 機關의 保安能力이 個人的 保安担当者보다 莫強한 힘이 있음을 認定하고 한층 더 強化된 內容으로 나타나 있다.

規則이나 施行令이 法을 違背하거나 但書を 지나치게 擴大한다는 것이 法の 係上 問題가 되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實際의으로도 指定調査機關의 自家用 電氣工作物에 對한 保安業務가 點檢業務 以外의 業務는 遂行하지 못하는 데에 問題가 있다.

施行規則에서 보면 設置, 改造等の 工事期間中에는 週1回, 最大電力 75kW~500kW 未滿의 것은 月 1~2回, 500~1,000kW 未滿의 것은 月 3~4回, 1,000kW 以上의 것은 月 5回의 點檢만 하면 되고 電氣設備의 工事, 維持 및 運用에 關한 事項을 契約할 수 있도록 規定되어 있으나 1回의 點檢에 所要되는 基準時間이나 期間은 定하여진 것이 없어 指定調査機關의 裁量에 맡겨져 있다.

指定調査機關 所屬의 電氣技師 1인이 30個所를 担当할 수 있는 最小 電氣設備規模인 300kW 程度의 事務室 專用建物이나 Hotel 을 例로 살펴보자.

冷房裝置가 있는 것은 延面積이 約 1,200坪이고 冷房裝置가 없는 것은 거의 두배가 넘는 面積이며 電氣施設로는 大개 配電盤 2面 以上, 分電盤 10面 以上, 分岐回路 400回路 以上, 그리고 變電設備와 發電設備等 적지않은 設備들이 있어서 最高級 技術者가 눈으로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建物の 施設을 한번 둘러 보기만 해도 1時間 以上이 걸리고 檢査하는때는 2인이 하더라도 2日 以上이 必要한 業務量이 된다.

1事業場당 2回씩 點檢해야 하고 30個所를 担当하니까 往復時間을 平均 2時間(規則에는 往復 4時間 以内)으로만 計算하더라도 120時間이 必要하며 法定勤勞時間인 月 181時間에서 남은 61時間을 點檢에 使用하면 1事業場에 1時間씩 2回를 點檢해야 하니 前記한 業務量을 어떻게 堪當해 나간단 말인가?

가득이나 點檢하려고 訪問했을 때 電氣를 使用하고 있어 點檢하기가 不可能한 경우도 많을 것이나 點檢이 可能하다고 하더라도 走馬看山이 아니라 飛行看山 程度로 빨라야 하니 그 內容이 어떨 것인가는 가히 짐작이 가는 바이다.

安全事故는 어떤가?

感電事故는 監督者가 있더라도 大개 運轉中에 運轉未熟이나 補修作業中에 작은 不注意로 일어나고 每日 巡視點檢하는 體制下에서도 큰 故障이나 火災等の 電氣事故가 發生하는 境遇가 있는 것이므로 保安担当者 兼任이나 保安代行人 安全事故에 있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式으로 事故後의 原因調査나 設備事故의 極히 一部分을 豫防할 수 있는 한 가지의 方便일뿐 絶對로 完全한 豫防措置일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電氣로 인한 火災가 每日 4件 程度가 發生하고 火災 때문에 每日 1.24人의 死傷者가 發生한다는 內務部의 統計가 있어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韓國電力公社의 統計에 依하면 1981년에 441件의 停電事故가 發生하였다고 한다. 이를 全國의로 보면 하루에 한번 以上 停電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自家用 電氣工作物의 事故가 韓國電力의 變電所까지 波及되어 配電線路에 停電을 誘發한 것이 約 30% 程度이며 自家用 電氣工作物의 區內에서 끝나는 故障이나 補修作業을 爲한 停電統計는 包含되지 않고 있다. 萬若 韓電 變電所의 遮斷器 1대에 自家用 需用家가 平均 80個所씩 連結되어 있다고 보면 441回의 停電回數를 呑할 境遇 35,000餘個의 事業場이 1回씩 停電된 셈이고 한번의 停電時 工場의 製品生産 中斷이나 不良品 發生等으로 因한 1業体當 損害額을 平均 100萬원만 본다고 해도 1년에 350億원의 損害가 난다는 計算이다. 이것은 5千餘名으로 推算되는 電氣保安担当者에게 月平均 50餘萬원씩 1年間 支給할 수 있

는 俸給額에 該當한다.

電氣가 現代社會의 必需品이 된 지 오래지만 自動車는 必需品化 되고 있는 實情이다. 一般 乘用車의 境遇 事故 1件當 被害額이 1億餘원, 버스는 5億餘원이 넘는다는 것이 發表되어 떠들썩한 적이 있었지만 電氣의 安全事故는 몇百億원을 넘을 수 있는데도 왜 조용하기만 할까? 權威있는 어떤 學者가 研究論文을 發表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交通事故의 被害額이 電氣事故만큼 된다면 아마 自動車を 모두 없애자는 意見이 나올런지도 모른다.

現行規程은 “電氣設備을 檢査만 하면 運轉과 整備는 無資格者가 해도 된다”고 定했는데 萬若千萬 원도 안되는 조그마한 것이지만 “自動車を 檢査만 徹底히 하면 運轉과 整備는 無資格者가 해도 된다”라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무어라고 말할 것인가?

어떤 企業에서 열심히 點檢하고 豫防整備를 하면서 몇年間 단한번의 事故도 없이 勤務하던 保安担当者가 매우 簡單한 理由 때문에 失職한 일이 있었는데 그 理由인즉 “數年間 事故한번 없이 安全했는데 電氣 保安担当者가 果然 必要한가? 별일 없으니 내 보내고 돈이 적게드는 保安代行業를 시키자”라는 것이었다. “가끔 事故나 故障이 나도록 豫防整備를 게을리해서 存在價値를 알게 하지 그랬어”하는 弄談을 하면서도 가슴이 아픈 理由는 무엇일까?

昨年 12月 韓國電氣安全公社는 몇몇 新聞에 다음과 같은 內容을 포함한 全5段의 廣告를 掲載한 일이 있다.

“韓國電氣安全公社에 保安을 委託시키면 個人 電氣技師를 選任하지 않아도 되어 人件費 節減과 安全稼動으로 生産性を 높일 수 있으며 電氣의 漏電 火災나 感電事故는 事前點檢과 診斷으로 豫防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엄연히 勤務者가 있는 業체에도 같은 內容의 案内文을 發送하여 事業擴張에 血眼이 되어 있다는 事實을 처하면서 法規를 起案한 사람의 本意圖는 그게 아니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요즘 電氣技師들의 電話를 받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오리발”이다.

政府의 權限과 韓國電力公社의 莫重한 業務를 委託받아 遂行하는 莫強한 機關이 安全이고 体面이고

間에 그 弱한 個人 電氣技師의 家族들이 굶게 되던 말건 職場을 빼앗아 收入만 增大시키겠다는 속마음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또한 이러한 內容도 모르고 電氣知識이 없는 大部分의 企業經營者들은 이러한 弘報로 因하여 人件費 節減의 手段으로 電氣技師의 解雇를 쉽게 決定하는 境遇가 많다. 그러나 實際로 有資格者인 電氣技師가 없어진다고 하여도 電氣關係 일을 볼 사람까지 없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保安担当者와 代務者의 人件費 差額을 月 15萬원 程度로 잡고 여기서 保安代行業手數料를 빼면 5~6萬원이 더 들게 되며 보너스까지 包含시켜도 年 幸百萬원程度 더 드는 셈이다. 그러나 事故時 1人의 死亡者 處理費用이 平均 1,500萬원程度 든다니 15년에 단한번의 事故가 난다고 해도 같은 金額이 所要된다.

또한 主要 電氣設備 故障時 復舊時間이 길어 질 수록 生産의 中斷, 技術者의 招請等 直·間接 損害가 比例해서 커지게 되고 安全管理教育, 應急措置, 節電, 資材의 節約等 保安担当者의 常任勤務는 企業의 利益을 爲하여 좀 더 肯定的이고 폭넓은 觀點에서 分析하여야 한다.

“産業發展에 가장 큰 沮害要因이 安全事故”임은 常識的인 事實이다. 個人의 財産이 바로 우리 國民의 것이고 國家의 것임을 생각할 때 莫大한 損失을 줄 수 있는 事故를 막아 나가지는 못할지언정 허술해지는 方向으로 가고 있음은 다시한번 생각해 볼 必要가 있지 않을까? 가까운 日本과 比較해 보자.

事業場 의 最大 電力規模 (kW)	區分 國名		電氣技師 1人이 担当할 수 있는 事業場數		比 率	
			個人技師 (兼任)	指定調査機關所 屬技師(代行)		
	日本	韓國	日本	韓國	日本	韓國
75~ 99	40	10	40	60	1 : 1	1 : 6
100~199	30	10	30	60	“	“
200~299	25	10	25	60	“	“
300~399	20	6	20	30	“	1 : 5
400~499	17	6	17	30	“	“
500~749	1	3		12		1 : 4
750~999	1	2		6		1 : 3
1,000이상	1	1		2		1 : 2

上記表에서 보는 바와같이 日本은 兼任하는 數와 代行하는 數가 같은 반면 우리나라는 最高 6 倍의 큰 差異가 있다. 더욱 爆發性, 引火性物質이 있어 危險한 場所에는 그 누구든지 兼任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指定調査機關에 所屬되면 30個所 까지 担当할 수 있다. 또 日本은 資格의 級別, 經歷別 制限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며 電氣技師 1級이 個人으로 兼任하면 指定調査機關에 所屬된 2級 電氣技師보다 적은 數의 事業場을 担当해야 하는 矛盾이 있다. 日本은 個人으로 活動하는 電氣技師들을 모아 協會를 地域別로 構成케 하고 政府가 指定調査機關과 同一한 監督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며 指定調査機關의 數도 日本은 여러개이지만 우리나라는 한개 뿐이다.

台灣도 日本과 비슷하여 兩者 公平히 다루도록 規定하고 있는데 惟獨 우리나라만 不公平하여 이 問題에 關한 限 “法앞에 모든 國民은 平等하다” 라는 民主主義의 基礎의 理念이 通하지 않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事故率이나 被害額이 外國에 比해 높은

理由中 가장 큰 理由가 이런 方法으로 運營하는 우리 스스로 招來한 結果임을 否定하지는 못할 것이다.

世界的인 貿易戰爭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오직 原價節減과 製品의 高級化 및 誠實한 信用뿐이라고 大統領께서 強調하신 바 있다. 勝利의 目標을 向한 基礎作業이라면 電氣保安担当 業務의 強化와 高級 電氣技術者의 養成이라 믿는다.

그러므로 今年에는 最大電力 300kW 未滿의 設備中에서 安全히 確信되는 것을 빼고는 “兼任” 이나 “保安代行”이라는 말이 없어야지 아니면 外國처럼 公平하게 規程이 改正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면 電氣人들이 서로 힐뜯는 일이 없어지는 副次的 利得도 있으니 國民和合의인 側面에서도 얼마나 좋은 契機가 될 것인가?

이것이 1983年을 맞으면서 今年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두번째 所願이며 첫번째 所願은 두말할 것도 없이 南北統一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것이다.

## 電氣技師 資格의 沿革

年月日	根 據 法 規	內 容
1887. 2.		舊韓末 王宮照明用 Arc 燈 처음 點燈
1898. 1. 18		漢城電氣會社 設立(美國人 運營)
1900. 4. 10		漢城府 鍾路에 民間用 電燈 처음 點燈
1907. 3.	電氣事業取締規則(日帝의 統監府令 第24号) 公布	電氣事業에 關한 內容만 規定
1910. 8. 22		韓日合併
1932.	朝鮮電氣事業令(朝鮮總督府 制令第 1号) 公布	① 電氣事業 外에 電氣使用者 中에서 “自家用電氣工作物 設置에 關한 事項과 ② 電氣事業用 및 自家用電氣工作物의 電氣技術 責任者로 選任하여야 하는 “電氣事業主任技術者 免許” 制度를 新設. 種類는 第1種, 第2種, 第3種으로 區分하고 免許의 發給方法은 ★政府施行 考試에 合格하는 方法 ★政府에서 指定한 學校의 電氣工學科 卒業者(朝鮮總督府 指定例).
		第1種: 日本의 大學에 限함 第2種: 京城工業高等學校, 京城工業專門學校(1945. 8. 15 以前 卒業者) 第3種: 京城公立工業學校, 裡里公立工業學校, 朝鮮電氣工業學校, 平壤第一公立工業學校(1945. 8. 15 以前 卒業者) ※ 日本에 있는 學校 省略
1945. 8. 15		解 放
1948. 8. 15		大韓民國 政府樹立

1961. 12. 31 電氣事業法(法律 第953号)制定 公布, 電氣主任技術者 資格檢定令 公布

1962. 8. 23 電氣主任技術者資格檢定令에 依據

1973. 2. 8 電氣事業法(法律 第2509号)制定 公布(40, 41, 49條).

★同法施行令(1973. 10. 11 大統領令 第6900号) 公布(16條)

★同法施行規則(1974. 1. 9 商工部令 第409号) 公布

★電氣事業法에 의한 主任技術者의 資格等에 關한 規則(1974. 4. 6 商工部令 第425号) 公布

1973. 12. 31 國家技術資格法(法律 第2672号)制定 公布

★同法 施行令(1974. 10. 16 大統令 第7283号) 公布

★同法 施行規則(1974. 12. 31 總理令 第142号) 公布

1975. 7. 2 電氣事業法施行令 第16條

1975. 12. 7 國家技術資格法

1981. 12. 31 電氣事業法 改正(法律 第3500号 40, 41, 42, 49條)

★同法 施行令 改正(1982. 4. 14 大統領令 第10794号 16條)

★同法 施行規則 改正(1982. 7. 19 動力資源部令 47, 47의 2, 51, 58條)

舊 “朝鮮電氣事業令”과 大同小異하나, 技術資格事項 變更

① 資格名: 電氣主任技術者

② 能力區分: 第1級, 第2級, 第3級

③ 免許發給: 國家檢定에 依한 方法만 採擇

④ 經過措置: 解放以後 第1回 國家檢定 以前의 學校卒業者 및 日帝下의 免許所持者에게 免許發給(認定) 第1回 電氣主任技術者資格檢定 實施

舊 “電氣事業法”과 매우 다르며, 또한 技術資格事項 變更(一部).

① 資格名: 電氣主任技術者(變更없음)

② 職務名: 保安担当者(新設)

③ 能力區分: 第1級, 第2級, 第3級(變更없음)

④ 免許發給: 國家檢定에 合格한 後 商工部長官이 指定하는 機關에서 實務修習을 마친者에게 免許發給(變更)

⑤ 任 務: 電氣工作物의 工事, 維持 및 運用을 위한 保安의 監督

技術資格의 變更

① 名 稱: “電氣主任技術者”를 “電氣技師”로

② 能力區分:

主任技術者	技 師
第1級	1級
第2級	1級
第3級	2級

③ 經過措置: 國家技術資格法에 依한 學歷 및 經歷未達者에 對 補修教育 履修後 資格登錄

國家技術資格法에 依據 名稱(級數 및 級數別 監督範圍 變更)

第1回 電氣技師 國家技術資格檢定 實施(응시자: 1급 877명, 2급 2,704명 計 3,581명)

電氣技師 實務修習 및 免許制度를 廢止하여 國家技術資格만으 로 使用하도록 一元化하고 保安担当者로 選任된 者에 限하여 義務教育制度 新設

● 案內 ● 회 비 납 부 안 내

회비체납회원은 아래와 같이 회비규정이 개정 되었어오니 참고하시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종류	입회금 (원)	년회비 (원)	증신회비 (원)	비 고
일반회원	5,000	12,000	6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신회비는 1년내분납할수 있음.</li> <li>• 특별회비는회비사정소위원 회에서의결</li> </ul>
기사회원	5,000	12,000	65,000	
특별회원	50,000			

개 정 전		
회비체납	회지발송	납부할 회비
1년	3개월발송	1년분
2년	정 지	2년분
3년이상	"	1년분+6,000원
개 정 후		
회비체납	회지발송	납부할 회비
1년	1년간발송	1년분
2년	정 지	1년분+8,000원
3년이상	"	1년분+10,000원